RDA INTERROBANG

RDA Interrobang (60호)
인터넷(www.rda.go.kr)에서
컬러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집필: 양순미 박사(031-290-0286)
안옥선

농촌 다문화, 공존의 시대

- 융화와 존중으로 빚어내는 하모니 -

2012. 4. 4. (제60호)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Ⅰ. 다문화 사회의 시대 ····· 1
Ⅱ. 우리 농촌의 다문화 ····· 6
Ⅲ. 농촌 다문화의 가치 ····· 10
Ⅳ. 시사점 ····· 19

RDA 농촌진흥청

RDA 인테러뱅 제60호 농촌 다문화, 공존의 시대 2012.4.4. 발간

양순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ysm@korea.kr
안옥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nos@korea.kr

≪ 요 약 ≫

지금 우리는 국가 간 거리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세계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문화는 자연스럽고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목격된다. 다문화란 이주민에 의해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이 도입된 국가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의미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가 발생·변천되어 왔으며, 각국은 다문화 사회를 위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회통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해 왔었으나, 최근의 개방과 교류의 확대, 결혼이민, 외국 노동력 유입 등으로 점차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외국인 수는 총인구의 1.9% 수준인 92만 명이며, '00~'08년 중 국내 외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19개 국가들의 2배에 이르는 속도이다. 그간 보수 전통사회의 대명사이던 농촌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다문화를 선도하는 지역과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 및 사고방식과 새로 유입되는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농촌다문화의 명(明)과 암(暗)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 다문화가 가져오는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고 밝은 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 농촌에 전해주는 가치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농촌에서 증가 중인 다문화의 가치는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MULTI'로 표현할 수 있다. ① **M**aintenance (농촌유지와 발전의 원동력): 농촌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지연시키고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견인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② **U**niversal(우리 농촌 속의 세계문화): 에스닉 푸드와 다문화가 만드는 축제의 장을 통해, 우리 농촌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촉매의 기능을 한다. ③ **L**inkage(다문화를 통한 新 문화 동맹):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문화동맹을 형성하여 국제관계를 활성화 한다. ④ **T**estbed(사회문제 해결의 시험장): 다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⑤ **I**mprovement(마을 분위기와 소득 향상): 기존 마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새로운 작목을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동력원의 역할도 한다.

새로운 우리인,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선 (1)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며, (2) 다문화가족의 인적, 그리고 문화자원적 가치를 활용하는 '두 갈래 전략'을 이용하는 한국형 다문화사회 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3) 정책의 시행은, 다문화로 이행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농촌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4)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역할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 8 1 > ;

h g ` v u 7 8 1 >

h g b *f* f ‡ 8 b – Á – þ ý d ÿ " H A Y Z ? A - A \ [ ] _ ^ " ` a ` b c A f d

h ¹ [h g A *f* G X « i • ë ù a 7 8 • i ë ù l » b c • © l ¤ ; Œ Đ A o 8

¼ h g ° À H Z j * # † | › â H • L € ~ ¾ Đ û · ‘ ¸ A **H • l** °

7 8 l { | } " ~ 7 8 • € f / • l ^ , x H A • *f* ... [„ 1 > v u # " 7 8 / ‡ u ˆ

@ ? „ ™ ¨ ... e – G 7 8 × ° ½ œ ... 7 8 ÷ 7 8 ¹ l – — Œ [! 7 8 A 9 : u Š " l |

7 8 ™ œ [7 8 s Ý • š 7 8 A D 1 ¹ A - A ¾ á

é b è) « ÷ 7 8 • š 7 8 1 ¹ l ÷ 7 8 1 ¹ G [? Đ 7 8 1 > A ° ‡

!"# $% & '()*+ ,-./0! 1'2 3 / 4 56 '7 8 9 -:;0! + <+ =2 >?@ABCD@AB@EF#ACGH$ %&' ()* +, -./)0 12 345 6 7 89: ;< =>? @A 5I B 4 CD E +4)F GH IJ' KLG M NO 5 PQ R S* 8T 125 UVT WX? CY JK Z[? 4 \- GH)* IJ' K*]^F R)T E_` NaNT bc' d)F ef dX eg hi /j IJ

@ é v 7 8 1 > ^ ç ¿ ÷ H { • • j ž 3 **, H › H _ ö**

□ 문화는 물과 같이 서서히 스며들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역사 속에 길이 남는 걸작들의 탄생 배경을 제공

○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남긴 민주주의, 문학, 과학, 철학 등은 유럽 대륙이 문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영향

- 크리스트교(헤브라이즘)가 유럽의 중심이 된 이후에도 그리스, 로마의 문화(헬레니즘)는 유럽 문화의 근간을 형성

○ 실크로드 등을 통해 수입된 중국과 아랍의 문물 등도 유럽이 새로운 산업에 눈을 뜨게 된 계기를 마련

- 중국 송나라의 도자기는 유럽의 도자기산업을, 아랍의 천문학, 의학, 수학 등은 유럽의 과학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

* 학술적으로는 문화접변(文化接變)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이웃한 문화가 서로 장단점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된 결과를 낳는다는 이론

그리스풍의 대영박물관

영국의 본차이나

프랑스의 오벨리스크

모네 '수련과 일본 다리'

다문화의 변천과 영향

□ 대항해시대 이후 19세기까지는 유럽 선진국들의 식민지 개척이 활발하여 지배국 문화로의 동화가 강조되던 시기

○ 남미에 스페인의 문화와 종교, 언어가 전파되고,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 영국을 본뜬 체제가 설립

* 에콰도르 키토 등지의 스페인식 건물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 유럽과 미국에 아랍계와 아프리카계 민족이 유입되어 선진국의 문화 우산 속에 편입되기 시작

□ 세계 각지에서 모인 문물들을 통해 얻어진 생각과 기법들이 유럽 각국의 예술과 건축에 영향을 미침

○ 영국, 프랑스 등은 약탈로 타국의 문물을 흡수했지만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 존중의식이 성숙

* 이집트, 그리스 등에서는 오벨리스크, 미이라, 엘진 마블 등을 반환 요청 중

○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동양을 다룬 각종 작품들이 제작

* 쇤부룬 궁전의 중국식 방, **푸치니**의 '나비부인', **모네**의 '일본 다리' 등

□ 제1차대전의 종전으로 왕정이 붕괴되면서 각지에서 자기 문화를 되찾기 위한 민족 독립이 활발하게 대두

○ 초기에는 소수민족끼리 연합하여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사례도 있었으나, 대부분 민족 중심의 국가를 형성

- 현재 유럽 국가들의 국명과 영토가 대부분 이때 확립되었으며, 제2차대전 이후까지 민족국가 수립의 움직임이 지속

* 6개 민족이 연합한 유고슬라비아, 2개 민족이 연합한 체코슬로바키아 등

20세기 세계 지도를 변화시킨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91)

▷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획일화된 사회에서 벗어나 고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확산시킨 사건**

- 소비에트 연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해체
-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의 민족국가로 분리

□ 일부 피지배층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서러움 등의 정서를 담아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가 주류에 편입되면서 널리 전파

○ 흑인의 노동요나 영가(靈歌)를 모태로 생성된 재즈와 블루스는 현대 음악의 주요 장르중 하나로 자리 매김

○ 브라질을 대표하는 삼바는 사탕수수밭에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의 춤에서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엷어지며 국민춤으로 변모

선진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 사람이 모여 만든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 지배와 피지배층 등의 많은 갈등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문화, 인종은 매우 큰 요인

○ 한 국가 내에 있으면서 법, 제도적으로 인권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도 작용

- 아프리카의 르완다사태와 같은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흑인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등

○ 빈부격차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던 상태에서 민족적 반감 등이 상충하여 폭동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존재

- KKK단, 네오나치(스킨헤드) 등 저소득층 백인의 흑인에 대한 차별, '05, 07년 프랑스 파리 교외(방리유, Banlieu)의 이슬람폭동 등

□ 사람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므로 각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채택되어 시행되는 중

○ 프랑스는 동화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로 현재는 '수용과 통합계약'을 체결하는 사회 통합과 기회균등정책으로 선회

○ 캐나다는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조화되는 '모자이크' 결합으로 표현되는 정책으로 타 문화의 보존향유권까지 인정

○ 독일은 과거의 차별, 배제주의에서 탈피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인구의 45%가 다문화가족인 호주는 '수용과 조화'에 중점

○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농촌 남성의 결혼문제에서 비롯된 다문화 문제를 지방정부 중심의 다문화공생시책으로 지원

선진국이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하는 공통 다문화정책들

▷ **공통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항은 이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

- 본인과 자녀에게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을 정부지원으로 시행하고 적응기간 중 출신국 언어로 소통가능한 서비스와 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한 비용을 지원

Ⅱ. 우리 농촌의 다문화

대한민국, 다문화를 맞이하다

□ 그간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해 오던 우리나라도 개방화, 국제교류의 확대, 결혼이민, 외국 노동력 유입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로 진입

○ 등록 외국인 규모는 총 인구의 1.9% 수준인 91.9만명('10)

- '00~'08년 중 국내 외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로 OECD 19개 국가들(평균 5.9%)에 비해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

* 같은 기간 중 내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0.42%에 불과

○ 농촌을 중심으로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와 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

□ 역사적으로 중국·일본 이외의 국가와는 교류가 드물었던 우리나라의 다문화 형성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존재

○ 농촌 지역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어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되면서 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

-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증가

-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전체의 1.3%('01)에서 9.6%('10)로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다문화가족의 20% 이상이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대부분(92.6%) 단순노무직에 종사

기록으로 보는 최초의 결혼 이민

▷ **가야국 김수로왕의 부인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

– **허황옥**의 아들 10명 중 허씨를 사용한 2명이 김해 허씨의 시조

* 현재 김해시 구산동에 남아있는 파사석탑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파신(波神)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 싣고 온 것

파사석탑

우리 농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 보수 전통사회의 대명사이던 농촌과 농림업이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다문화의 선도지역과 업종으로 대두

○ 90년대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 적극 추진되면서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 시작

- '04~'10년 농림어업종사자들의 국제결혼 사례는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 사례의 27.4~41.4%를 차지

* 현재 농어촌의 결혼이민 여성은 약 12만명 정도로 추산

○ 갈수록 결혼이민 여성과 자녀들이 농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역할이 다양해지고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자녀 2명 출산 시, '20년 19세 미만 농촌 인구의 절반이 다문화 2세대로 구성

□ 기존의 문화·사고방식과 새로 유입된 문화·사고방식이 조화롭게 공존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어려움이 발생

○ 농촌 다문화부부들이 문화적 갈등을 느끼는 요인은 부모 부양 방식, 식문화와 가사분담의 순('08, 농촌진흥청)

○ 적응 과정을 도와줄 내국인이나 집안 분위기, 고향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는 점도 적응이 어려워지는 요인

* 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는 다양

○ 다문화가족의 생활수준은 국내 농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사회적 편견, 차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가 많음

농촌 다문화 연구와 농촌진흥청

▷ **다문화를 농촌문제 해결의 자연스런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중**

- 결혼이민 여성들이 단기간 내에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업농촌생활용어집」 등 다수의 책자 발간·보급
-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아열대작물의 재배법 연구를 수행

농촌 다문화의 명암(明暗)

□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족이 점차 자리 잡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천적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

○ 20~30대들이 대다수인 결혼이민 여성 집단은 초고령화된 농촌 공동체에 활력을 부여('11, 농촌진흥청)

- 면 지역 여성의 중위연령[3] 상승폭이 '95~'00년 4세에서 '00~'05년 5.6세로 증가했다가 '05~'10년 3.4세로 급격히 감소

- 농림어업분야 GDP 성장률은 결혼이민자 유입과 밀접한 관계

  * '09년 농림어업분야 GDP 성장률(6.4%)은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0.8%)의 8배

  * 여성 생산가능인구[4] 중 결혼이민자의 비율: ('00) 1.27% → ('10) 4.19

- 일부에서는 이장, 부녀회장 등 마을의 대표 역할을 수행 중

○ 자녀를 통해 가문을 잇는데 관심이 높은 농촌 사회에 2세 출산을 통해 가족의 구심점을 제공

○ 부부가 함께 하는 농업활동은 시간 공유, 의사소통의 기회 확대로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소득도 증대

○ 보수적인 농촌 지역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신기술·문화를 받아들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

다문화의 실천적 역할 영역과 패러다임에 따른 역할

역할 영역	농산업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촌농업 문화산업의 원동력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환경	농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어메니티 자원 구축	농촌 다문화의 생활환경 개선
집단	농촌사회의 개방성 증대	농촌 공동체의 유대감 형성

* 자료: **장경빈**(2011)에서 응용

3) 전체 인구에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4)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15~64세의 인구로 '09년 우리나라의 비율은 72.6%

□ 다문화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현실

○ 농촌 다문화가족의 소득이 같은 지역의 국내농가에 비해 낮아 이민 여성의 적응 의욕을 떨어뜨려 빈곤의 대물림이 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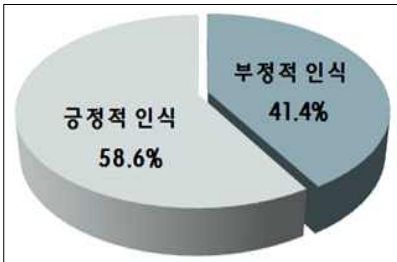
- 평균 경작면적이 0.5ha 이하로 국내 농가(2ha)에 비해 영세하며, 결혼 이전부터 영세한 경우가 많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일부에서 단일민족의식, 순혈주의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인종 차별과 혼혈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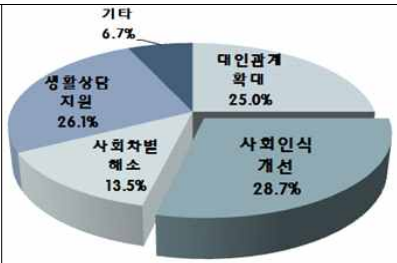
- 농촌의 결혼이민 여성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28.7%)과 차별 해소(13.5%)를 많이 요구

- 결혼이민 여성 개인이 아닌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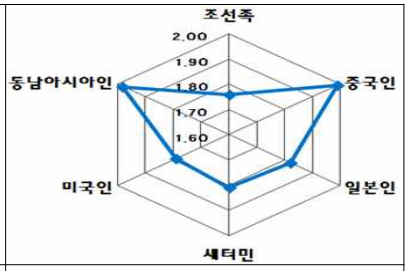
* 새터민·조선족·미국·일본 출신보다 중국·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여성에게 거리감을 더 크게 느낌



지역사회의 태도[5)]



사회적 지원 요구



출신 국가별 사회적 거리

○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결혼이민여성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존재

- 배우자와 연령·학력 차이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

○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을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일원으로 인식하고 충실하게 기르는 교육 시스템이 미흡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에는 다문화 요인보다 또래관계, 교사와 가족의 지지가 중요('07, 농촌진흥청)

5) 이하 농촌진흥청(2011), **한국학중앙연구원**(2011)의 자료를 인용

Ⅲ. 농촌 다문화의 가치

□ 농촌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multiculture)의 가치는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MULTI'로 표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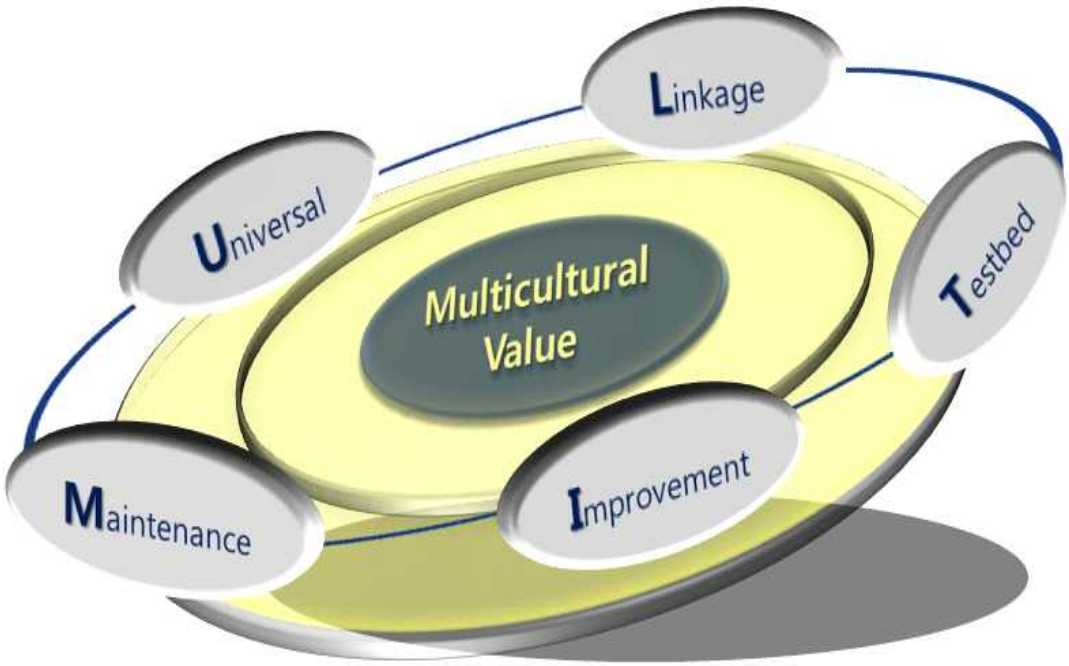
○ Maintenance: 고령화를 지연하고 출산율을 높여 농촌 공동체의 기반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견인체

○ Universal: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린 음식, 축제 등을 통하여 우리 농촌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촉매

○ Linkage: 글로컬(glocal)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 지역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新문화동맹'의 연계 고리

○ Testbed: 다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

○ Improvement: 기존 마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새로운 작목을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동력원



농촌에서 찾아보는 다문화의 가치

Maintenance | **농촌 유지·발전의 원동력**

우리 농촌 지킴이, 다문화 가족

□ 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 공동화·고령화 현상이 나타나 농촌 지역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

○ 농촌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젊은 층의 농촌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농촌의 인구 구조는 역(逆)피라미드형을 형성

* '70년 1,44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7%를 차지하던 농가인구는 '09년 300만 명을 밑도는 6.5%까지 하락

□ 다문화 가족은 농촌 고령화를 지연시키고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생산인력의 감소를 막으며 우리 농촌을 유지('11, 농촌진흥청)

○ 농촌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캄보디아 결혼이민 여성의 평균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면지역 출생률은 2005년 40.11명에서 2010년 47.61명으로 7.5명 증가하여, 전국 출생률(3.7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이들은 농촌의 생산 인력을 유지하여 농촌 공동화 현상 및 농촌 붕괴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결혼이민 여성의 유입으로 농촌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가능인구가 4.19%로 증가

25년 만에 아이 울음이 울려퍼진 농촌

▷ **LA타임즈에 우리 농촌에 시집 온 결혼이민여성의 출산 이야기가 크게 게재**

- "S. Koreans Search Far and Wide for a Wife"라는 제목으로 1면과 10면에서 크게 다룸('06.9.21.)
- 우리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여성들의 농촌기피현상을 다루며, 절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결혼이민여성이 기쁨을 주었다고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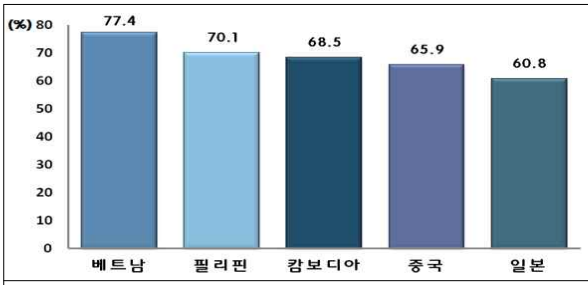
BARBARA DEMICK Los Angeles Times

NEW FACES: *Foreign wives such Yi Ok-ran, an ethnic Korean from China, and her daughter help boost rural pop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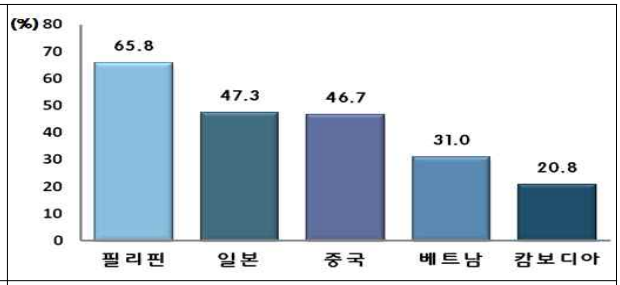
농촌 발전의 차세대 주자, 다문화 가족

□ 결혼이민여성들은 활발한 농업활동을 펼치며 젊은 여성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서도 역할

○ 농촌 결혼이민자의 69%가 농업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교육과 지역사회활동에 73%, 취업에 43%가 참여('09, 농촌진흥청)



결혼이민여성의 농업활동 참여율



결혼이민여성의 취업활동 참여율

○ 실질적으로 이들의 활동은 농림어업분야 GDP 성장률과 높은 상관을 보임('11, 농촌진흥청)

* 농림어업 GDP 성장률과 결혼이민 유입의 상관성: 농촌 r=.79, 농가 r=.78

○ 젊고 적극적인 결혼이민 여성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면서 발전시키는 후계 농업인으로 재탄생

엠마 씨(필리핀)[6]

후인티엠 씨(베트남)

리엔 씨(베트남)

우리 농촌 발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결혼이민여성들

▷ 필리핀 출신, **나바로 엠마**(충남 예산·35)씨는 논 3,000평과 밭 500평을 경작하고, 필리핀 식료품을 판매하는 등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베트남에서 온 **후인티엠**(전남 곡성·28)씨는 영농교육으로 익힌 수준급의 경운기 운전 실력과 함께 봄 고추경작을 준비하는 당찬 우리의 여성농업인

▷ 베트남 출신, **리엔**(경북 경주·26)씨는 남편과 함께 벼, 도라지 등을 경작하며 복합영농으로 전문 농업인의 꿈을 키우는 중

6) 이하 사진은 **세계일보**, **경향신문**, **농민신문**에서 인용

Universal 우리 농촌 속 세계 문화

식탁 위의 세계 일주, 에스닉 푸드(Ethnic Food)

□ 다문화 가족은 최근 외식업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에스닉 푸드 등을 실현하며 농촌을 음식 다문화의 장으로 변신시킴

○ '가지는 못해도 맛볼 순 있다,' '식탁 위의 세계일주'를 꿈꾸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에스닉 푸드

- 에스닉 푸드란, 이미 세계화된 음식이 아닌 신비함과 독특함을 지닌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의 음식을 지칭

다양성과 웰빙의 시대, 에스닉 푸드의 전성기

▷ **인도의 카레, 베트남 쌀국수, 태국의 똠양꿍과 팟타이, 멕시코의 타코 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구가**

- 에스닉 푸드는 주류와 차별화되는 독특함과 신비함이 특징
- 카레와 쌀국수 등 대부분이 웰빙 음식으로 여겨져 국내외에서의 인기는 갈수록 증가하는 중

○ 다문화는 에스닉 푸드의 풍부한 자원으로, 농촌지역의 식문화를 풍부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

- 다문화 요리와 식재료, 가공식품, 식탁예절 등 다양한 식문화 소재가 국내의 것과 융합되어 새로운 식문화가 탄생

- 하동의 **한구자리 채울**, 수원의 **다문화 푸드랜드(Food Land)** 등 다문화 레스토랑의 탄생이 점차 활발해지는 중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하는 다림촌(多林寸)

▷ **횡성의 다문화 음식점, 다림촌은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결혼이민여성들에 의해서 탄생**

-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 요리 개발과 함께 독특한 마케팅 전략으로 다국적 음식 제공은 물론,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으로도 발전 중

다문화가 만드는 축제의 장

□ 다문화를 테마로 한 지역 축제는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문화 지역이 만들어 내는 이국적 풍경 자체가 관광 상품화

○ 다문화 수공예품이나 생활문화용품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 장터는 농촌 관광의 새로운 테마로도 활용이 가능

* 호주의 다문화 장터, **록스마켓**(Rock's Market)은 다문화 공예품, 예술품 등을 팔며,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

○ 캐나다, 호주 등 다문화 국가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다문화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 다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다문화 이민관이 탄생하는 등 더욱 풍부해진 문화를 통한 농촌 활성화가 진행 중

○ 다문화 요리, 아열대 농산물 가공, 공예품 제작, 놀이문화 등의 소재를 묶은 체험교실이 탄생하여 높은 인기를 구가

* 양평 **나섬 다문화 생태마을**은 다문화 국가의 언어와 놀이 배우기, 전통의상 체험,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다문화 이민관은 이국 문화 전시는 물론, 농촌 지역 문화 공연 및 갤러리, 공예품 장터 등 문화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

카라반 축제의 참여자

National Multicultural Festival Canberra

캔버라 축제 로고

카리바나(Caribana) 축제

세계 속의 3대 다문화 축제

▷ **캐나다의 카라반 축제(Festival Caravan)에는 매년 200만 명이 방문하며, 카리바나 축제에는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3억 달러 이상 수익 창출**

▷ **호주 캔버라 축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타민족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Linkage | **다문화를 통한 新 문화 동맹**

지역의 숨은 문화 외교관, 다문화 가족

□ 다문화 가족은 글로컬(glocal) 시대를 맞아 우리 농촌 지역의 문화 외교력을 높이며 '新 문화 동맹'을 창출할 것을 기대

○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결혼이민여성들은 각 지역에서 자신의 고향이 있는 지역과 문화 교두보로 활동이 가능

- 결혼이민여성들로 인해 우리 농촌과 이민여성 출신국 간 지역 교류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상호 이해의 폭도 확장 가능

○ 다문화는 농촌지역 국제 교류 활성화를 이끌고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결혼이민자의 '동화'와 병행, 다문화주의적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민자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지역 차원의 활동이 요구

□ 다문화 가족의 언어 구사력과 문화 이해력은 국제 지역 거버넌스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

○ 다양한 언어문화 환경은 글로벌한 다문화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유용한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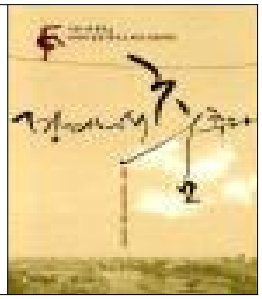
-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이중 언어(bilingual)와 문화 교육의 필요성 대두

* 결혼이민자의 8.2%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모국어 지도를 요구('09, 복지부 등)

다양한 언어가 보여주는 넓은 세계

▷ **다와다 요코는 하나의 언어 안에 있으면 더 넓은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두 언어를 섞어 책을 집필**

- '한 가지 언어로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생기게 된다'며 '경계를 벗어나 생각하라'고 주장
- 그의 저서는 앞부분은 독일어로, 뒷부분은 일본어로 구성



Testbed 사회 문제 해결의 시험장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 농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혼 이민여성들과 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아픔을 공유하는 최적 공간

○ OECD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외국이민자의 증가율은 가장 빠른 속도이며, 관련한 사회문제도 증가 중('09, **현대경제연구원**)

* '09년 우리나라의 '외국문화개방도'와 '이민법'은 최하위 수준(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보고서)

□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은 다문화와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

○ **오스기 사토미**씨(전북)는 부녀회장직을 맡아 상담을 통해 동네 이민여성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는 마을의 '왕언니'

- 진안군내 200여 다문화 가족의 정기모임을 이끌고, 이민여성의 생일을 챙기는 등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

○ **굴바르친**씨(충북)는 농사는 물론 대학에서 '다문화 성공사례'를 강의하고, 언론 활동을 통해 다문화 소식도 알리는 슈퍼우먼

- **농협대학**의 강사, 지역언론의 객원기자, **여성신문**의 명예기자, 보건소 영어통역을 통해 이민여성의 대변자와 희망전도사 역할

* **신금옥**씨(전남)는 지역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공부방에 간식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어려운 육아에 도움

사토미씨(일본)[7]

굴바르친씨(키르기스스탄)

신금옥씨 가족(중국)

7) 이하 **KBS**, **공감코리아**, **여성신문**에서 인용

Improvement 마을 분위기와 소득의 향상

농촌 여론의 주도층으로 부상(浮上)

□ 농촌 외부로부터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이 유입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들이 농촌의 지식인 계층을 형성하고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

○ 일본·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수준인 남편보다 높고, 중국은 비슷, 베트남·캄보디아는 낮음[8)]

- 38.5%가 친정국가의 교사·간호사·컴퓨터 전문 자격 등을 보유

□ 보수성이 강한 농촌에서 마을 이장직을 맡는 등 농촌 지역사회에 전해오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변화

○ 여성결혼 이민자 최초로 마을이장이 된 **박원복**(전북)씨는 '여자가 이장을 하나?'라는 비아냥거림을 뚝심으로 이겨낸 사례

* 강한 추진력으로 주위 우려를 극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앞장

○ **영천다문화가족센터** 가족생활지도사와 마을 이장을 병행하는 **조만숙**씨(경북)는 레크리에이션 강사, 웃음치료사 자격증도 취득

* '09년 석계리의 이장을 맡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매일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의 다툼도 조정하는 역할

○ 결혼이민여성 최초의 보육방문교사, **마리아페**씨(충북)는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법을 전수하여 마을의 '마반장'으로 불림

박원복씨(중국)[9)]

조만숙씨 가족(중국)

마리아페씨(오른쪽, 필리핀)

8) 이하 농촌진흥청(2009)의 자료 인용
9) 이하 **농업인신문**, **프라이드뉴스**, **연합뉴스**에서 인용

신 작물과 직거래를 통해 소득 향상을 주도

□ 다문화 농가는 아열대 작물의 재배경험을 통해 우리 농촌이 기후 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참살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아열대 작물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소득 작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증가

- 함양군은 40농가가 13.4ha에 여주(쓴오이)를 재배하면서 법인체를 만들고, 통풍치료용 여주 추출물로 국내 특허를 등록

* 여주는 벼의 10배, 딸기 후작인 수박의 2배로 농가 소득을 보장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 필리핀에서 시집 온 **김지영**씨(전남)는 압팔레야, 오크라, 싯다우, 수박, 파파야 등을 시험재배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을 전파

□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함께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직거래를 이용하는 주체로 떠오르는 중

○ 부족한 농사기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우고, 판매방식도 직거래를 이용

- **에밀리**씨(강원, 필리핀)는 '어울림 텃밭'에서 고추와 가지를 키워 반찬거리직거래사업단('**꾸러미**')을 통해 판매

- **산체스**씨(강원, 필리핀)는 남편과 함께 수확한 유기농 애호박과 가지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도권의 유통매장에 납품

결혼 이민여성의 경제적 기반, 사회적 기업 '어울림'

▷ **다문화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다문화 사회적 기업**

-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결혼이민여성의 자립기반인 영농법인 '**어울림**'을 설립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문화 공동체 구축,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

Ⅳ. 시사점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

□ 나와 같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한 시기

○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유럽 뿐 아니라 동남아의 음식이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을 만큼 문화의 다양성은 보편화

- 21세기의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경쟁력의 척도

○ 우리 문화에 비해 선진국의 문화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듯 개발도상국의 문화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상대주의를 수용

* 가장 파괴력이 크며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이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등장(**사무엘 헌팅턴**, 1996)

한국형 다문화사회 모델 개발이 절실

□ 우리나라의 정책개발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로 다문화가족의 인적·문화자원적 가치를 활용하는 Two-Track 전략이 요구

○ 인적자원은 적응 지원과 갈등 관리가, 문화자원은 다양한 산업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는 다문화테마 산업화 모델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 사업화가 필요한 부분

- 차별화된 사업과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육성하여 귀감이 될 만한 상징적 모델(Landmark)을 만드는 것이 시급

* 일본의 다문화정책같이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태의 도입도 검토할만한 사례

- 의존지향형 복지보다는 사업화를 통한 자립지향 정책의 적용이 절실

농촌 지역 우선의 다문화 정책 시행이 필요

□ 농촌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이 가장 빠른 곳으로, 이주, 가족의 구성, 2세의 탄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공간

○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부정의 영향이 모두 연구된 공간으로 정책·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최적

- 농촌의 과소화·고령화 문제 해결에의 기여,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서비스의 문제점 등 문제와 해답이 공존하는 공간

○ 우리나라 입국부터 정착, 2세의 탄생, 2세의 사회편입 등 모든 정책과 주관기관의 영역 등을 재검토한 통합정책 탄생의 적지

-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지원하는 것이 가능

* 적응을 위한 언어 및 영농(생활)교육, 자녀양육, 문화갈등관리, 생활상담, 영농, 의료, 문화시설 등의 중복성 정책을 정리하고 통합화할 기회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연구 강화도 중요

□ 다양한 문화배경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의 잠재력을 개발할 역할 모델(role model)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

○ 국내외의 우수사례 발굴과 다양한 분야의 사업아이템을 접목한 지자체별 특성화 사업 개발 연구가 미흡한 실정

* 결혼이민여성들의 농가공품 생산공동체 조직을 결성하고 판로를 지원한 야마가타현(山形縣) 쓰루오카시(鶴岡市)의 **우메짱김치**회사 등의 사례

○ 지역여성농업인 CEO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업 지원,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기반조성 서비스 등의 개발도 요구

-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또래관계 형성, 언어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농촌특화형 공동육아시설' 지원 등은 시급

RDA 인테러뱅
INTERROBANG 2011.1.12. 창간

발행인 : 박현출
편집인 : 이병서, 최준열, 민차영, 조우석, 이동현
발행처 :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전화 031-299-1066 **팩스** 031-299-2899
인쇄처 :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02-426-4415
ISSN : 2233-5056
발간등록번호 : 11-1390000-002866-03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